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

김정용

광주가톨릭대학교,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2.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본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 2.1. ‘잎싹’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서사구조
 - 2.2. ‘잎싹’의 주체로서의 형성과정
 - 2.2.1. 철망 닭장 속 잎싹의 현실인식과 자기의식화
 - 2.2.2.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
 - 2.3. ‘잎싹’을 통해 본 주체성 형성의 핵심 원리
 - 2.3.1. 따뜻한 감수성: 존재와 생명을 향한 갈망과 의지
 - 2.3.2. 운명에 굴종하지 않는 삶과 용기: 자유
3. ‘잎싹’의 시선에서 본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역할
 - 3.1.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살림의 신앙
 - 3.2. 예언자적 자유
 - 3.3.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
4. 나가는 말

* 본고는 주교회의 여성위원회 세미나(2013년 11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글이다.

1. 들어가는 말

현재 교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문화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교회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을 위한 복음적 회심을 전제로 한다. 이 복음적 회심은 특히 여성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청하며,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는 마땅하게도 이를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교회 문화에 대한 회심의 호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 용어로 새로운 실천과 구조 그리고 관습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세례를 통한 공동된 품위에 기초하여 교회의 삶에 충만하게 참여하라는 그들의 소명에 관한 것이다.”¹⁾

또한 이 문서에서 인용된 ‘한국 종합 의견서’ 내용은 시노달리타스 문화의 구체화를 위하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교회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²⁾

따라서 세계주교대의원회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또 여성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은 교회 안팎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리라고 여긴다. 특히 시노달리타스 문화의 토착화 맥락에서 한국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³⁾

본고는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학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오늘의 한국 사회

1)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이사 54,2):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60항.

2)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이사 54,2):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 61항.

3) 이에 대해서는 특히 박정우, 『여성 지위와 역할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한국교회의 과제』, 사목연구 33(2014, 겨울), 261-267 참조.

4)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파주: 사계절, 2011). 이 작품은 2011년 애니메이션 영화(제목: 마당을 나온 암탉 / 감독: 오성운)로 제작되었다.

속의 여성의 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텍스트로서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동화에 등장하는 ‘암탉 잎싹’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하고, 또 그 주체성이 어떻게 보편성(관계성)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체성’에 대한 해석⁵⁾은 혈연, 가족 등 배타적인 동일성을 넘어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에서 낯선 타자와의 인격적 상호관계(차이 속의 일치) 속에서 역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주체성에 대한 이런 관점을 하나의 예시로 제시할 뿐 보편타당한 여성의 주체성 해석임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아울러 본고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인데⁶⁾, 인격적 상호수용(이의 극치로서 타자를 위한 헌신)이 낯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근본 조건임을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암탉 잎싹’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서사구조와 주체성 형성의 핵심 원리를 재구성하고²⁾, 이를 토대로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역할을 생명에 대한 연민과 돌봄, 예언자적 자유,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³⁾.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 여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상호 존중의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2.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본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여성 주체성의 서사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암탉 잎싹’이 철두철미하게 자본의 지배를 받는 철망 닭장의 세

-
- 5)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과 관련하여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선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 주체성’에 대한 근대와 포스트모더니트의 관점에 대해서는 특히 노성숙, “주체성 (Subjectivity)”, 여성이론 13(2005, 12), 251-268; 노성숙, “포스트모더니트와 여성주의에서 본 젠더와 정체성”, 인간연구 8(2005.1), 5-39 참조. 아울러 과학기술 시대의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최근의 흥미로운 논의로는 박예은, 조미라,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주체성”, 철학탐구 56(2019), 153-179 참조.
- 6) 요한복음에서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낯선 타자를 위한 자기 비움, 헌신, 더 나아가 목숨을 내어줌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해석원리이다. “나는 아름다운 목자다(bonus pastor). ...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15)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타자를 위한 헌신은 일방적, 위계적, 우월적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생성된 것이다. 곧 예수의 아름다움 역시 ‘지금, 여기’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관계 그리고 타자를 위한 헌신(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아름다움의 계시).

계와 타자를 배제하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내면화된 마당의 세계를 벗어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형성해간다는 점에서 그렇게 읽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여성이 처한 현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알을 품어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이 소망인 암탉 앞썩이 그와는 전혀 ‘다른’ 족속인 청둥오리의 엄마가 되고, 급기야 적대적인 족제비의 어린 새끼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 관점이 여성의 모성성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모성성을 근원적으로 생명과 타자에 대한 수용성과 보편적 연대와 돌봄, 주체적인 상호관계와 존재 의미를 고양시키는 관점에서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본고는 먼저 앞썩이 자신의 주체성을 세워가는 이야기 구조를 분석하고, 그와 더불어 주체성의 형성과정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주체성을 이루는 핵심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1. ‘앞썩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서사구조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앞썩이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압축하여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철망 닭장에서부터 죽음의 구덩이에 폐기처분되기까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앞썩이는 철망 닭장 속에 갇혀 생명 없는 죽음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시하는 현실인식과 자기의식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철망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음식을 철폐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앞썩이는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병든 폐계로 취급당하게 되고 죽음의 구덩이에 폐기처분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곧 철망 속에서 희망 없이 갇혀 있는 삶과 단절해야 비로소 소망의 길이 열리고,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험마저(필요한 경우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죽음의 구덩이에서 간신히 살아나와 마당의 세계로 가지만 그곳에서 배척받기까지의 과정이다. 앞썩이가 죽음의 구덩이에 폐기처분되는 운명이 되어서야 철망 닭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암탉을 노리는 사냥꾼 족제비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

게 된다. 그러나 나그네 청둥오리의 도움을 받고 극적으로 죽음의 구덩이를 빠져나온다. 죽음의 구덩이로부터 살아나온 잎썩이 철망 닭장에서 동경했던 마당의 세계로 향해 가지 만 그곳에 사는 식구들로부터 배척당한다. 잎썩이 동경하고 상상했던 마당의 세계는 자유로운 낙원이 아니라 배타적인 위계구조와 그에 따른 고착화된 운명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 마당의 세계의 배척과 거부는 역설적이게도 잎썩이에게는 가부장적인 위계구조와 배타적인 권력체계 그리고 편협한 운명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자아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셋째, 마당의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후 들판과 저수지 늪에서 자아의 주체성을 확고히 형성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타자수용성으로서의 보편성)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마당의 세계로부터 거부당한 잎썩이는 어미 없는 낫선 오리알을 품어 탄생시키고 자신의 아기로 받아들이으로써 그토록 소망했던 엄마가 되기는 했으나, 정치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삶이 고단하여 다시 안전한 철망 닭장 속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고 마당의 세계에 대한 미련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냥꾼 족제비의 항시적인 위협 속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의 날개가 잘린 채 마당의 세계에 묶여 살 수는 없었다. 잎썩이 마당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는 곧 안전하지만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것은 생명 없는 죽음의 삶과 하등 다를 바 없고, 시련이 있더라도 하늘을 휘젓고 날아다니고 싶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야말로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적인 갈망이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며, 이 갈망이 비로소 삶을 삶답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족속이 ‘다른’ 청둥오리의 엄마가 되고, 자신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리는 사냥꾼 족제비의 아기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는 희생으로써 마침내 잎썩이의 주체성은 그 이름에 걸맞게 보편적인 모성성으로서 실현된다. 잎썩이 갈망했던 자유는 궁극적으로 낫선 타자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타자를 위하여, 타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완성된다.

넷째, 잎썩이 사냥꾼 족제비의 굶주린 아기들을 위해 헌신한 후, 온전한 자유의 날개를 얻고, 마침내 전혀 다른 세계의 지평(신학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의 지평)을 열게 된 과정이다. 잎썩이는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비로소 “크고 아름다운 날개”(191)를 얻어 하늘을 날게 되었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2.2. 잎싹의 주체로서의 형성과정

2.2.1. 철망 닭장 속 잎싹의 현실인식과 자기의식화

삶의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물음이다. 잎싹이 처한 현실은 비좁고 사방이 차가운 철망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양계장이다. 이곳은 “돌아다니거나 날개를 푸덕거릴 수도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10) 곳이며, 심지어 암탉이 자신이 낳은 알과 닿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철두철미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다. 철망 속에 갇혀 사는 암탉들은 다만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큼직한 알을 낳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이다. 철망 닭장 속 암탉은 자신이 낳은 알을 품어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일 꼬박꼬박 알을 낳아야 한다. 알을 낳지 못할 정도로 늙어 폐계가 되거나 병이 들어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암탉은 더는 그곳에서조차 살 수 없고, 폐기처분되거나 트럭에 실려 양계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철망 닭장 속 암탉은 알을 생산하지만 그 알은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 암탉의 소망인 철망 닭장으로부터의 자유는 병이 들거나 알을 낳지 못하는 폐계가 되어 효용가치가 다 했을 때러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잎싹이 ‘철망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인 마당’으로 나와 ‘마당을 자유롭게 오가는 상상’을 하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현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현실상황 인식자체만으로 주체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물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대체로 현실상황에 아랑곳없이 그에 만족하거나 기꺼이 순응하게 되는 수가 많다. 현실상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비판적 자각은 언제나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잎싹이 철망 속에서도 바깥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마당 끝 ‘아카시아 나무’를 통해서였다. 아카시아 나무가 사계절 동안 이루어내는 변화에 잎싹은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12 이하 참조) 마당의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된 것도 잎싹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10)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카시아 나무는 철망 속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을 일깨워주고, 마당의 어미 암탉은 잎싹의 내적 갈망을 건드려 깨워 잎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잎싹이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의식하게 시작한

것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이다.

“잎썩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워서 ‘잎썩’이라는 이름을 저 혼자 지어 가졌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잎사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이 묘했다. 비밀을 간직한 느낌이 었다.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13)

“바람과 햇볕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잎사귀”(13)라는 아름다운 뜻을 지닌 잎썩은 자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게 되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는다.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스스로 부르게 된 것은 잎썩이 비로소 자신의 삶과 운명의 주체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 다름 아니며, 이는 곧 현실상황에 순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시하며, 자아의식과 삶의 지평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잎썩이 “혼자서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17)은 물론이고 “폐계가 무슨 말인지”(20)조차 몰랐다는 것은 철망 닭장의 현실이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 작동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망은 잎썩이 아무리 목을 내밀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폐쇄된 존재의 공간이며,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는 알을 생산하기 위한 공간일 뿐이다. 게다가 철망은 차가운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만이 작동하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잎썩이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자본의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동시에 철망의 현실에 비판적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왜 나는 닭장에 있고, 저 암탉은 마당에 있을까?”(17)라는 물음은 생명이 될 수 없는 알을 생산하도록 그저 온종일 ‘모이를 쪼아 먹는 일’ 외에는 그 무엇도 허용되지 않은 철망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닭은 날개를 포기해 버렸어. 어째서 벼를 가진 족속이라는 것만 기억했을까?”(134)라는 물음이나 “그동안 왜 한 번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189)라는 물음은 단순히 자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체념적 물음이 아니라 잎썩이 자신의 주체성을 심층적으로 의식화하고 내면화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물음이 되었다.

아울러 자기 주체성에 대한 물음이 타자에게 건너갈 때 그것은 타자를 해방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엄마와의 이별을 망설이는 ‘초록머리’에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게 뭔지 네 자신에게 물어봐.”(172)라고 잎썩이 말을 건네는 것은 초록이가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해방의 힘으로 작용한다. 진정한 주체성은 타자의 주체성을 배제하거나 자기 동일화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는데서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2.2.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

한 존재가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은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이다. 그 누구도 타자와의 관계와 만남 없는 고립된 존재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실현할 수 없다. 잎썩이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했던 타자는 무엇보다도 ‘나그네 청둥오리’와 자신이 품어 넣은 ‘초록머리’이다

잎썩이 나그네라 부르는 청둥오리는 사냥꾼 족제비에 몰려 한쪽 날개가 뜯겨나가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되었으나 한때 높은 하늘을 마당삼아 휘젓고 날아다녔던 기억을 깊이 간직한 채 마당의 끝자락에서 사는 국외자이다. 나그네 청둥오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기를 바랐으나 날개가 잘려 나갔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이었다. 그러나 그가 품고 있었던 소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억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그네 청둥오리는 잎썩이 철망에서 나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위기로부터 불러내어 구해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잎썩은 사냥꾼 족제비의 먹잇감이 되어 결코 소망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나그네 청둥오리는 배타적인 마당식구들에 맞서 잎썩이 마당의 헛간에 머물도록 해주었으며, 잎썩이 들판에서 알을 품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을 구해주고,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 애쓰다 결국 스스로 족제비의 먹잇감이 된다.

하늘을 맘껏 날아다니는 소망을 청둥오리 자신이 직접 이룰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잎썩에게 소망의 날개를 부여함으로써 이루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청둥오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잎썩은 자신의 주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의식하게 되고 주체로서 자신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동기를 얻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둥오리는 잎썩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이름과 의미를 처음으로 말하게 된 상대였고, 처음으로 잎썩의 “이름을 불러 주는 친구”(73)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친구의 의미는 차이를 넘어서, 차이 속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81)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한 존재를 주체로 불러내고 주체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초록머리’ 또한 잎싹이 주체적인 존재로 형성되는 데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답답한 철망 속에서 매일 생기 없는 사료를 먹고 생명 없는 알을 생산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잎싹은 병든 폐계 취급을 당해 죽음의 구덩이에 폐기처분되어서야 철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정작 그의 소망인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잎싹은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폐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잎싹은 우연히 찢레덤불 속에서 어미 없는 낯선 알을 발견하고 알을 품게 된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겼다.

이처럼 초록머리는 잎싹이 ‘자신과 족속이 다른’ 오리의 알을 품어 얻은 존재이며, 잎싹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다. 잎싹은 초록머리를 탄생시키고 자신의 아기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성의 새로운 지평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잎싹이 ‘보편적 모성성’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편적 모성성은 나중에 잎싹이 사냥꾼 족제비의 아기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완성된다.

청둥오리의 야생의 껍을 타고난 초록머리 역시 족속이 다른 엄마 잎싹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초록머리가 외톨이의 삶에 회의를 느껴 마당의 세계로 들어가 살고자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갈등을 느낄 때, 잎싹은 언제나 묵묵히 초록머리를 지지해주었고, 하늘높이 날아다니면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초록머리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게 뭔지 네 자신에게 물어봐.”(172) 설령 위험이 뒤따르고 모험을 감행해야 하더라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단절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창조적 전망을 얻기 위한 단절은 불가피하다. 나그네 청둥오리가 잎싹이 품은 자신의 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안위마저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처럼, 잎싹이 철망과 마당의 세계와 단절하고 거친 들판의 세계에서 발견한 다른 족속의 생명을 품고 낳아 비로소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잎싹은 초록머리가 엄마와의 단절을 통해서만 하늘 높이 훨훨 날아다니는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잎싹과 초록머리의 주체적 관계는 서로 다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타자성을 수용함으로써 형성되며, 이 주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타인의 타자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때 더욱 빛나게 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잎싹과 나그네 청둥오리가 서로의 차이 속에서 상호수용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이처럼 잎싹과 초

록머리가 서로의 타자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관계는 잎싹과 초록머리가 서로 건네는 말에서 절정을 이룬다.

- 잎싹이 초록머리에게:

“서로 다르게 생겼어도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136)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152)

- 초록머리가 잎싹에게: “엄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173)

2.3. ‘잎싹’을 통해 본 주체성 형성의 핵심 원리

2.3.1. 따뜻한 감수성: 존재와 생명을 향한 갈망과 의지

잎싹이 주체적인 존재로 설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소유와 죽음의 철망을 넘어서 존재와 생명을 향한 갈망이었다. 잎싹이 생활하는 철망의 세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본의 논리와 경제적 가치만이 지배하는 곳이며, 어떤 존재의미도 발견할 수 없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사방이 가로막힌 이곳은 존재의 날개를 펼칠 수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도 없고, 말을 건네거나 말을 들어줄 관계도 형성될 수 없는 곳이다. 그나마 절망의 철망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병들거나 알을 낳지 못하면 언제든지 폐기되거나 시장에 팔려나가는 운명에 놓이기 때문이다.

잎싹이 처한 딱한 현실은 대부분의 암탉들이 놓여있는 처지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잎싹에게는 철망의 세계를 벗어나 알을 품고 병아리의 탄생을 보리라는 소망이 있었다. 그 소망은 자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름을 얻거나 부른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타자를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⁷⁾ 잎싹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명을 키우기 위하여 썩어서 거름이

7)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이 점이 더욱 잘 표현되어 있다. 잎싹은 오리들에게는 ‘도, 미, 솔, 도’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고, 자신을 구해준 청둥오리를 ‘나그네’, 마당의 수탉을 ‘아침’, 마당의 닭들을 ‘천사’, 숲속의 공인중개사 수탉을 ‘달수’, 참새를 ‘썹’, 두루미를 ‘천사날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되는 존재라는 뜻의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철망의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앞썩이 철망 속에서 식음을 전폐한 후 더 이상 생명이 될 수 없는 알을 낳지 않기로 한 데서 잘 엿볼 수 있다.

존재와 생명에 대한 갈망은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것이며, 타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데까지 이른다. 타자의 존재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갈망은, 곧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갈망은 그저 적자생존의 논리에 묶인 생존본능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썩이 청둥오리의 알을 품어 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소망 속에서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가 함께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썩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냥꾼 족제비의 아기들에게 연민을 품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앞썩은 켄한 족제비 눈을 보면서 물경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웬지 그 살덩이가 앞썩이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서 마당에 던져졌던 알. 너무나 가워서 가슴이 굵히듯이 아프던 기억. 또다시 온 몸이 땀 뻘뻘해지려고 했다. ...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190)

앞썩이 보여준 바대로 생명의 보편성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가치를 넘어서고, 자아와 타자, 심지어 적대적 타자와의 경계를 벗어나 오로지 모든 생명의 가치를 깊게 신뢰하는 데서 생겨난다. 이처럼 생명의 보편성을 위한 앞썩이의 연민과 희생에서 보편적 모성성의 전형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앞썩에게 보편적 모성성은 타자의 생명, 심지어 적대적인 타자의 생명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자면 앞썩이 타자의 생명을 위한 보편적 모성성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마침내 온전히 이루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생명의 의미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썩의 이름이 지닌 아름다움이 거룩하게 빛나게 된 것이다.

2.3.2. 운명에 굴종하지 않는 삶과 용기: 자유

앞썩이 철망 닭장 속에서도, 마당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들판과 저수지 늪의 세계에서 도 언제나 한결같이 소망을 품고 간직하고 실현할 수 있었던 따뜻한 감수성의 근원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놓여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철망으로 가로막힌 닭장이 자본의 지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라면 마당의 세계는 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곳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력체계에 순응하고 속박됨으로써 비로소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다. 무엇보다도 그 세계는, 날개가 꺾여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으나 한때나마 높은 하늘을 날았던 기억을 간직한 채 마당의 끝자락에 사는 나그네 청둥오리 외에는, 잎썩을 마당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병든 폐계취급을 당해 폐기처분되는 운명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잎썩이 동경했던 마당의 세계는 철망 속에서 상상하고 소망했던 만큼 자유로운 생명들을 위한 곳은 아니었던 것이다.

마당의 세계에서는 욕심 많고 사나운 수탉을 우두머리로 하는 위계질서 아래 자리다툼과 서로 밥그릇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고된 경쟁이 일상화된 곳이었고, 마당 식구들의 한결같은 사나운 탐욕 때문에 밥을 나누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늙은 개는 수탉의 권력아래 마당의 질서를 유지하는 문지기 노릇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내가 문지기로 살아야 하고, 수탉이 아침을 알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는 본래 닭장에서 알을 낳게 되어 있었잖아. 마당이 아니라 바로 닭장에서! 그게 바로 규칙이라고.”(54)

배타적인 오리들은 잎썩을 무슨 전염병마냥 여겨 천대하고 마당의 한 식구가 되는 것을 모질게 거절한다. 마당의 식구들을 먹잇감으로 호시탐탐 노리는 마당 밖 족제비는 굶주린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마당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역시 잎썩에게 호의적일 수 없다. 마당 그 어디에도 이방인 잎썩을 위한 공간은 없었으니, 잎썩이 차라리 생명 없는 알이라도 낳을 수 있었던 철망 닭장을 그리워할 법도 했다. 그러나 잎썩은 다시 예전처럼 철망 닭장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잎썩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고, 자유는 마당의 세계를 더 이상 보금자리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 족제비의 위험마저 감수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잎썩은 냉철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잎썩이 열렬하게 갈망했던 마당은 철망 닭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배타적이고 닫힌 세계였고, 그곳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잎썩은 마당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낯선 알을 정성스럽게 품어 부화시킨 아기가 병아리가 아니라 자신과 족속이 다른 오

리라는 것도, 사냥꾼 족제비의 위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고단함조차도 잎삭에게는 자유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잎삭이 마당의 세계를 떠날 결심을 못했더라면 철망 닭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묻지 못한 채, 그저 온종일 생기 없는 사료를 먹고 기껏해야 생명 없는 알을 낳는데 일생을 바쳐야 했을 것이다. 엄마가 되리라는 소망은 물론이고 벼를 가졌다는 기억 말고는 왜 날개를 포기했는지, 새처럼 하늘을 맘껏 휘젓고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향한 존재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한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그걸 이루었어. 고달프게 살았지만 참 행복하기도 했어. 소망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던 거야. 이제는 날아가고 싶어! 나도 초록머리처럼 훨훨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잎삭은 날개를 퍼덕거리 보았다. 그동안 왜 한 번도 나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어린 초록머리도 서툴게 시작했는데. 아 미처 몰랐어! 날고 싶은 것, 그건 다른 소망이었구나. 소망보다 더 간절하게 몸이 원하는 거였어.”(189)

잎삭의 독백은 자신의 근원적인 갈망과 자유의 소리를 깊이 귀여겨듣고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주체성은 비로소 썩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잎삭이 사냥꾼 족제비의 굶주린 아기들을 위한 먹이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은, 존재와 생명을 향한 근원적인 갈망은 타자를 향한 깊은 연민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잎삭은 타자의 생명을 위해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서 비로소 망각해버린 자유의 날개를 되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곧 자유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때 마침내 그 진정한 얼굴을 온전히 드러낸다. 잎삭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한 것이다. 잎삭의 아름다운 자유는 그렇게 성취되었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정신도 말끔하고 모든 게 아주 가뭇했다. 그러더니 깃털처럼 몸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잎삭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191)

지금까지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잎삭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을 형성해가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세계상은 무엇보다도 타자를 배제하는 오늘의 현실세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잎삭은 어떤 별난 존재라기보다는 그 세계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해 각박한 삶을 살거나

혹은 누구나처럼 평범한 삶을 동경하는 술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앞작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앞작의 남다른 점은 그 세계 속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섬세하고 깊은 의식과 타자에 대한 따뜻한 연민, 자유로운 삶을 향한 존재의 근원적인 소리에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체적 존재로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앞작의 이러한 시선은 오늘의 교회와 사회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모색할 때 근원적인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앞작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역할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3. ‘앞작’의 시선에서 본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역할

지금까지 본고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작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 존재로서 자신을 형성해가고 실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세계상은 무엇보다도 타자를 배제하는 오늘의 현실세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앞작은 어떤 별난 존재라기보다는 그 세계에 간혀 출구를 찾지 못해 강박한 삶을 살거나 혹은 누구나처럼 평범한 삶을 동경하는 술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앞작은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앞작의 남다른 점은 그 세계 속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섬세하고 깊은 의식과 타자에 대한 따뜻한 연민, 자유로운 삶을 향한 존재의 근원적인 소리에 무감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체적 존재로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앞작의 이러한 시선은 오늘의 교회와 사회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모색할 때 근원적인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앞작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역할을 성찰해보고자 한다.

3.1. 생명에 대한 연민과 살림의 신앙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는 생존본능과 생명연장에 대한 욕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위협에 처한 타자의 생명에 무감각해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감수성이 약화된 데서 연유한 것이지만, 이는 신비의

영역 속에 놓여있는 생명의 세계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시키거나 평가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신비의 영역 혹은 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의 세계가 경제적 가치에 종속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세속가치체계에 의해 침탈당하면 생명은 더 이상 존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신비의 영역에 속해있는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것이 깊이 내면화된 사회일수록 생명의 세계를 그만큼 불안과 위험 속에 빠뜨리고 차별의 세계로 타락시킨다.

성적과 진학, 취업, 외로움, 생활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남녀노소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홀날리는 꽃잎처럼 스러져간 사람들, 개별적 이유가 어찌됐건 이들은 모두 신비의 영역 밖에서 생명의 위험 속에 놓이거나 방치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가 차가운 돌심장의 사회가 된 까닭도 생명의 세계를 더 이상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일상화된 자살문제의 심각성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 놓여있다: 사회적 약자들(특히 장애인)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여성차별, 사회적경제적 차별 등), 일상화되고(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제도화된(국가폭력 등) 폭력, 남북의 분단 상황과 적대적 갈등 관계, 가공할 재앙덩어리인 핵발전소의 위험, 불확실한 유전자 조작식품과 허술한 관리체계, 생태계의 파괴 등. 이와 더불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의 사목현장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갖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 지체의 상해, 육체와 정신을 해치는 고문, 심리적 억압과 같이 인간의 온전함에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 인간 이하의 생활 조건, 불법 감금, 추방, 노예화 매매춘, 부녀자와 연소자의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또한 노동자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단순한 도구로 취급당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이 모든 행위와 이 같은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치욕적입니다. 이는 인간의 문명을 부패시키는 한편,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그러한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을 더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욕하는 것입니다.”⁸⁾

이 모든 위협은 생명의 세계를 신비의 영역에서 세속가치의 영역으로 탈바꿈시킨 데서

8) 『사목 현장』 27항.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앞쪽의 시선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쪽은 경제의 논리에 종속된 생명의 세계를 본래의 신비의 영역, 신적 영역으로 되돌려놓기 때문이다. 우선 앞쪽이 낳은 알을 바라보는 ‘주인 남자’와 ‘앞쪽’ 자신의 시선을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앞쪽이 낳은 알은 주인 남자에게 오로지 상품의 가치여부만이 중요할 뿐이다. 생명 따위엔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반면에 앞쪽에게 알은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는 생명이다. 그런 까닭에 앞쪽은 자신이 낳은 알을 품어보기는커녕 ‘발끝으로조차 만져 볼 수 없고’, 또 ‘바구니에 담겨 밖으로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처지에 깊이 상심하며, 껍데기가 다 여물지 못한 물렁한 알을 주인 남자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마당에 내던졌을 때 ‘가슴이 아파게 굽히는 것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18) 그리고 찢레담불에서 발견한 청둥오리의 알을 품고 탄생을 기다리게 되는 순간부터 앞쪽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시작되었다.”(64) 자신이 낳은 알이 아니었고, 심지어 족속이 달랐음에도 앞쪽에게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었으며, 알이 탄생했을 때, 오로지 그 경이로움 때문에 “앞쪽은 녀를 잃고 서 있었다.”(86) 생명의 경이로움에 휩싸인 앞쪽의 연민은 적대적인 사냥꾼 족제비의 아기들을 만났을 때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고, 굶주린 어린 것들을 위해 먹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생명의 신비를 경이롭게 여기는 자만이 타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타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쪽의 헌신은, 모든 존재를 죄와 죽음의 세계로부터 해방시켜 생명의 세계로 불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쪽의 시선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와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영역은 몇 가지 특정한 생명윤리적인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생명의 복음 선포는 생명의 복음을 체질화한 여성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곧 살림의 신앙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살림의 신앙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다름 아니다.9) “생명의 영역과 생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빛을 지고 있”10)기에

남성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새롭게 규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법 제36조가 ‘모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¹¹⁾

그러나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여성은 인격체들의 세계 안에서 사랑의 경륜이 그 안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토양”¹²⁾이며, 하느님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여성의 모성성을 단순히 가부장적인 남성의 언어로만 이해해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앞씨의 모성성은 ‘모든 목숨을 끌어안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세상의 모순이 사납게 들끓고 있는’ ‘현실의 불모성을 견디고 건너가기 위한 다리’와 같은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³⁾

이처럼 삶의 비극성과 현실의 불모성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면, 이는 가정공동체와 교회에서 살림의 복음과 신앙을 전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한다. “가정은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이며, 인간성은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는 만큼 생명의 복음, 살림의 신앙을 전수함으로써 생명을 체험하고 키우는 장이 되는 데 여성의 역할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가정의 역할, 특히 여성의 역할을 그 무엇이 대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 인간을 참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가. 아울러 가족의 모델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이를테면 앞씨가 초록머리와 이룬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형성된 ‘참가족’ 모델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마태 12,46-50 참조). 교회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복음을 통한 생명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여성의 역할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9) 강영옥, 「천주교 여성 지도력의 특성과 한계」, 『종교연구』 58(2010, 3월, 봄), 171 참조.

10)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교회와 여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109.

11) 이와 관련하여 『사목 헌장』 52항 참조: “국가 권력은 혼인과 가정의 진정한 특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 가정의 번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그 신성한 임무로 여겨야 한다. 자녀를 낳고 가정의 품안에서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12) 요한 바오로 2세, 『여성의 존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98.

13) 나희덕,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서울: 창비, 2007), 69.

3.2. 예언자적 자유

모든 당대의 현실세계에는 그 형태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대에 주로 통용되는 이념, 가치 및 사유체계 그리고 윤리적, 관습적 질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세계에 사는 인간은 그에 따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합리적,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인간이 자신을 주체적인 존재로 실현하기 위한 근원적인 갈망이며, 동시에 더 나은 삶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무풍지대 속의 자유가 아니라 현실상황에 의해 예측되거나 제약될 수 있으며, 때때로 그의 실현을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참된 자유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해서도 속박될 수 없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잎삭은 참된 자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잎삭은 자유의 날개가 꺾여 기존의 질서에 예측되기보다는 차라리 풍찬노숙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잎삭이 철망과 마당의 세계를 떠난 근본이유였다. 자유로운 잎삭의 등장은 마당의 질서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마당의 질서는 표면상 수탉의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 선입견, 편견, 배타성, 자유 없는 운명, 차별이 지배하는 곳이었으나(37. 42. 95. 97. 100 참조), 마당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주인부부였다. 자유로운 잎삭이 맞서 뒤흔든 질서는 수탉이 다스리는 질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인부부가 형성해놓은 자유의 날개를 꺾는 억압의 질서였다(102 참조). 이러한 억압의 질서에 도전하고 강자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자유를 향한 잎삭의 갈망이었다. 마당의 세계는 잎삭을 세 번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잎삭이 마침내 자유의 날개를 얻고(타자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네 번째 찾은 마당은 더 이상 잎삭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191)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은 주체적 존재로 불러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유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된다. 하느님의 나라는 현실세계의 모든 가치체계와 사고체계를 의문에 처하고 기존의 배타적인 지배구조나 관계구조를 전복시키는 그리스도인 자유행위의 근거이며 원천이다. 자유로운 존재는 그가 속한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의 종교전통, 배타적인 사회질서, 사고구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 그분의 의로움’을 향해 확고하게 서 계셨던 자유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은 오늘날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추종하는 예언자적인 자유 속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하고,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체계에 균열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사회와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구조와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위한 연대로 표현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두 가지 예언자적인 전통을 재발견하고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리아의 예언자적인 삶과 한국 그리스도인 여성의 해방하는 전통이다.

먼저 마리아의 예언자적인 삶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해방 전통을 재발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아상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해석되고, 마리아 신심 또한 그것을 재생산하는 차원에서 실천되어왔다는 비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교회 안의 여성의 이미지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어머니’ 상이 강하고, 교회 내 여성들은 주도적으로 사도적 활동을 기획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사제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권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가톨릭 교회의 여성에 대한 가르침이 주로 가정 안에서의 여성 역할에 치우치고, 성모 마리아와 같은 순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의 가르침은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더 무조건적인 인내와 순종, 희생을 강요하는 성향이 있다.”¹⁴⁾

이러한 비판의 관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성모 마리아 이해와 마리아 신심이 여성에 대한 편협하고 가부장적인 관점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 대한 이해와 신심은 근본적으로 성경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경의 마리아 상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재구

14) 이미영, 「한국 천주교 여성의 현실과 전망」, 『한국 천주교 여성 운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천주교 여성운동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2013), 108 이하.

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마리아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¹⁵⁾ 달리 말하자면,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마리아가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하느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살아있는 희망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과 구원행위는 언제나 그에 대한 인간의 심층적인 수용과 타자를 받아들이는 자유를 통해서만 비로소 살아 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리아의 순명 역시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자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어야지 단순히 피동적이고 강제된 순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마리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순명을 여성의 순종적인 이미지로 곡해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한 해석이다.

또한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루카 11,28)이었다는 것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루카 1,38: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이를 교회 헌장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교회 53항)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자체를 세상에 낳아 주셨”(교회 56항)다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것”(교회 56항)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마리아가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을 존재와 사명의 원천으로 삼고 그 말씀의 빛 속에서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선포하였던 예언자들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교회 헌장』 56항: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정된 어머니의 동의가 강생에 앞서 이루어져 마치 어느 모로 여인이 죽음에 이바지 한 것처럼 그렇게 또한 여인이 생명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가장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생명 자체를 세상에 낳아 주셨고 하느님에게서 이 위대한 임무에 맞맞은 은혜를 받았다. ...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이렇게 아담의 딸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무런 죄의 거리낌도 없이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인격과 활동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드님 밑에서 아드님과 함께 구원의 신비에 봉사하셨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이 마리아께서 순전히 피동적으로 하느님께 이용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구원에 협력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예언자적인 전통은 특히 마리아의 노래(마니피캇)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의 권능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시고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며,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고 굵주린 이들을 배불리시며,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리라’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희망의 노래’이다. 이러한 희망의 여성으로서 마리아의 상은 오늘의 여성들에게 풍부한 암시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대 여성들은 ‘주님의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교회 55항) 마리아에게서 가난과 고통, 파난과 유배를 체험한(마태 2,13-23 참조)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들은 인간과 사회를 복음정신으로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드님에게만 배타적으로 사랑을 쏟으신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사도 공동체의 믿음을 복돋우신(요한 2,1-12 참조) 분으로서 해골산에서 만인의 어머니가 되신 분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¹⁶⁾

아울러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위하여 한국 그리스도인 여성의 해방 전통을 재발견하고, 이를 오늘의 교회와 사회 안에서 계승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 천주교회사와 한국 역사의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이 수행했던 예언자적인 역할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시도들은 매우 고무적이다.¹⁷⁾ 그와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일부 가톨릭 여성 연구 단체의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도 폭넓게 수용되고 확산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 여성의 예언자적 역할이 보다 명료하게 표현되고 수행되기 위하여 다양한 여성 사도직 단체들이 한국사회와 지역사회(본당 및 교구가 속한)의 여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식별하여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3.3.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

오늘날 여성의 아름다움은 사회적으로 존재(인간성)의 차원보다는 소유(상품화된 육체성)의 차원에서 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의 육체성의 상품화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왜곡시키고,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여기서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 마당의 암탉이 일찍이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보는 것은

16) 바오로 6세, 『마리아 공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4), 37항.

17) 특히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한국가톨릭여성사』, (서울: 분도출판사, 2008) 참조.

흥미로울 것이다. 마당의 암탉은 족속이 다른 청둥오리의 아기를 부화시키고 마당을 찾아 간 잎썩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폐계가 알을 낳았을 리 없지! 그때 음식점에 팔려 갔더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걸!”(95) 게다가 마당의 암탉은 잎썩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모질게 말한다. “헛간에 암탉은 나 하나로 충분해. 게다가 아기가 여섯이나 태어나서 헛간이 비좁단 말야. 아기들을 가르칠 일도 걱정이야. ‘어째서 채는 암탉한테 껍껍거리며 엄마라고 하지?’, ‘어째서 채는 우리와는 달라?’ 하고 쉬지 않고 물을 게 뻘해. 어떤 아기는 빠악거리지 않고 껍껍 소리를 흉내낼지도 몰라. 나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꼴볼견 암탉과 아기 오리를 내 보내는 게 좋겠어.”(97) 마당의 암탉은 “풍만한 몸과 윤기가 흐르는 깃털에 단정한 벧”(41)을 가졌으나 마당의 배타적인 질서에 적극적으로 순응할 뿐이다. 잎썩과 동일한 암탉으로서 타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에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마당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마당을 나온 잎썩은 “비록 몸은 말랐어도 ... 전보다 더 강해졌다. 어둠 속의 움직임을 판단하게 된 침착한 눈, 단단한 부리, 날카로운 발톱”(126)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잎썩을 전에 전염병균 취급했던 오리 우두머리로는 이렇게 말한다. “모양새는 뭐 그저 그런데, 뭔가 ... 헛간의 암탉과는 다른 것 같아. 훨씬 당당해진 것 같고, 우아하고 참 이상도 하지. 깃털이 송송 빠졌는데도 그렇게 보이다니!”(176 이하)

잎썩의 아름다움은 ‘현실의 불모성’ 한 가운데에서 차이와 타자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친화력을 통하여 단련되었고, 약자에 대한 보편적인 모성적 돌봄의 영성에 터하여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잎썩의 아름다움은 자본에 논리에 따라 소비되는 육체성 혹은 육체성의 상업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자유를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그리고 잎썩은 타자를 위한 헌신을 통하여 자유와 생명으로서 육체성의 아름다움과 육체성의 의미지평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열어놓았다.¹⁸⁾

잎썩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의미지평은 오늘날 여성의 아름다움을

18)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몸의 신학’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특히 2-18항; 칼 A. 앤더슨호세 그라나도스, 『사랑이 부르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입문』, 이순박문수 역, (교양사: 사람과사랑, 2009); 리비오 멜라니, 『가톨릭 사랑학의 계보』, 박문수 역, (교양사: 사람과사랑, 2010); 미하엘 발트슈타인, 『몸의 신학 입문: ‘몸의 신학’에 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에 관하여』, 이병호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앤서니 퍼시, 『쉽게 쓴 몸의 신학』, 김한수 역,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참조.

생명 없는 육체성으로 환원하여 상업적으로 소비하고, 왜곡하는 한국사회에 암시하는 바가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성노예가 된 여성들을 비롯하여 이주민 여성들과의 연대 등 여성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리스도인 여성이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리라 본다.

교회적 차원에서는 타자에 대한 감수성과 보편적 돌봄의 영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지도력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 내 여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 구조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곧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교회와 사회 속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물음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성찰은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새로운 주체적 존재가 되어 창조적인 구원역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데 있으며¹⁹⁾, 이러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실현이야말로 교회와 사회 속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위한 근본적인 토양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주체성 실현은 여성을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모든 사유체제와 사회체제의 변혁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오늘을 사는 여성의 주체성 물음에 대한 풍부하고 숙고할만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명과 살림의 복음 선포자요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적인 자유를 사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을 조명해보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와 교회 속 여성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성찰해보았다.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물음이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더

19)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성의 신학적 정체성은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자”(1코린 3,9)라는 데 있으며, 이는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데서 연유한다.(갈라 3,28: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나아가 모든 인간이 온전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이는 곧 로즈마리 류우터(Rosemary R. Ruether)의 말처럼 “남자나 여자, 억압자나 피억압자 할 것 없이 우리는 소외와 사회적 억압의 체제들로 인하여 거부되어 왔던 전체적인 인간(whole humanity)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가 있”²¹⁾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와 사회 속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찰되어야 하리라 본다. 여성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참인간)으로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그리스도인 여성의 근본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노달리타스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열리기를 기대하며, 여기서는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교회 내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주교 시노드 사무국장으로 여성 수도자를 임명하고,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나 교회법 제230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여성 평신도의 역할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확인한 사례가 그것이다.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제1항)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²²⁾(2021년 개정 교회법 제230조 제1항)

특히 성직자 중심주의가 체질화되어 있는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위한 전임교원으로 여성 평신도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할 필요도 있다.²³⁾ 여성 평신도들이 사제 양성에 다양하게 참여하여(신학 교육, 성소 심의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더 나아가 여성(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및 개별교구 차원에서 시노달리타스 문화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여성의 근본적인 역할은 “인간성의 상실을 막는데” 있다고 본다. 『여성의 존엄』, 1항 참조.

21) 로즈마리 R. 류우터, 「여성해방의 신학과 여성」, 이우정 편,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⁵⁾), 387.

22) 프란치스코,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23) 교회법, 제229조 제3항: “또한 그들은[평신도들은] 자격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참고문헌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그린이: 김환영), 파주시: 사계절, 2011.
- 오성윤,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2011.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_____, 『교회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바오로 6세, 『마리아 공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4.
- 요한 바오로 2세, 『여성의 존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 프란치스코, 『주님의 성령(Spiritus Domini)』,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주교대위원회의 사무처,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이사 54,2): 대륙별 단계 작업 문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 강영옥, 「천주교 여성 지도력의 특성과 한계」, 『종교연구』 58(2010, 3월, 봄), 157-177.
- 나희덕,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서울: 창비, 2007.
- 로즈마리 R. 류우터, 「여성해방의 신학과 영성」, 이우정 편,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⁵, 366-396.
- 박정우, 「여성 지위와 역할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한국교회의 과제」, 『사목연구』 33(2014, 겨울), 236-274.
- 이미영, 「한국 천주교 여성의 현실과 전망」, 『한국 천주교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천주교 여성운동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2013, 95-112.
-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교회와 여성』,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한국가톨릭여성사』, 서울: 분도출판사, 2008.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통해 본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

김정용

본고는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사계절, 2011)에 대한 분석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세상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동화가 오늘날의 여성이 처한 현실을 숙고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기며, 무엇보다도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철망으로 사방이 비좁게 가로막힌 곳에서 암탉들이 집단적으로 사육되는 거대한 양계장은 자본의 지배를 받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자본의 질서와 논리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철망 닭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병이 들거나 알을 낳지 못하는 폐계가 되어 효용가치가 다 했을 때라야 비로소 열리는 데, 그것은 곧 죽음이다. ‘잎싹’이 ‘마당’으로 나와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잎싹이 찾은 마당의 세계는 자본의 논리가 내면화된 곳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력체계에 순응하고 속박될 때 비로소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다. 철망 닭장과 마당의 세계가 결코 줄 수 없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잎싹은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 족제비의 위협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마침내 마당을 떠난다. 그리고 잎싹은 심지어 사냥꾼 족제비의 가엾은 아기들을 위한 먹이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서 주체성과 아름다움을 증언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 등장하는 잎싹의 주체성과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필자는 세상과 교회 속 그리스도인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의 진면목은 생명에 대한 연민과 돌봄 그리고 예언자적 자유를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신을 표명할 때 드러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그리스도인 여성의 역할, 자본의 논리, 여성의 주체성과 아름다움, 연민, 예언자적 자유

Women's subjectivity and beauty:

The role of Christian women in the World and church through theological reflection on Hwang Sun-mi's fairy tale "The Hen Out of the Madang(Yard)"

Kim, Jung-Yo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Christian women in the world and church through analysis and theological reflection on Hwang Sun-mi's fairy tale "The Hen Out of the Madang (Yard)" (Four Seasons, 2011). I think this fairy tale is a good text to contemplate the reality of today's women, and above all, I would like to find the role of a Christian woman by interpret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subjectivity and beauty.

The huge poultry farm, where hens are collectively raised in a place narrowly blocked on all sides by wire mesh, is a place where they are thoroughly governed by the order and logic of capital as they are governed by capital. The way out of the cage dominated by the logic of capital opens only when the value of utility is exhausted due to the disease or the inability to lay eggs, which is death. That's why leaf sprouts' came out as a 'madang (yard)' and embraced the 'wish to hold eggs and see the birth of chicks'. However, the world of the yard found by leaf sprouts is where the logic of capital is internalized, and safety is guaranteed only when it conforms to and binds to an exclusive and closed power system. In order to gain freedom that the world of wire mesh enclosing hens and yard can never give, the leaf sprout finally leave the yard, regardless of the risk of a hunter weasel seeking his life. And leaf sprouts even testify to their subjectivity and beauty by willing to give their lives as food for poor babies of hunter weasel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journey to find the identity and beauty of the leaf sprout in “The Hen Out of the Madang (yard),” I want to reveal that the true nature of the world and the Christian woman in the church can be revealed when expressing oneself as a creature living compassion, care, and prophetic freedom.

Key Words: the role of Christian women, the logic of capital, compassion, women’s subjectivity and beauty, prophetic freedom

논문 투고일	2023년 3월 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3월 27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30일